

책·공연·영상으로 전하는 '세월호의 기억'



편지 모음집 '그리운 너에게'



'돌움 무용단'의 공연모습.

세월호 4주기 다양한 추모행사

2014년 4월 16일, 온 국민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아픔을 남긴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책 발간, 공연, 영화상영 등 다양한 추모행사가 펼쳐져 눈길을 끈다.

먼저, 희생된 학생들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내는 육필편지 모음집 '그리운 너에게'(후마니타스)가 발간됐다.

(사)4·16가족협의회와 (사)4·16 기억저장소가 엮은 책은 하늘의 별이 된 아들에게 보내는 110편의 편지가 담겨 있다.

이들의 편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바로 '사랑한다'는 단어다. 아들·딸들을 향한 절절한 그리움은 참척(慘愾)의 고통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부모들의 아픔을 대변한다.

편지는 글에서 부모들은 "세월호의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지내 온 4년, 다시 편지를 쓴다"며 "우리의 눈물과 슬픔, 용기와 희망을 꼭꼭 눌러 담아 손으로 편지를 쓴다"고 밝혔다.

또한 "진실을 깨우치고 우리의 존엄을 세상에 알려 온, 세월호 참사 이후 4년이 그랬던 것처럼 이 손 편지가 다시 진실을 향해 큰 걸음을 북돋는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자 큰 기적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록된 육필 편지는 누구도 대신 쓸 수 없는 내용과 형식을 통해 그들만의 내밀한 기억을 더듬으며 '희생자들'이라는 말에 가렸던 한 명, 한 명의 존재를 환기한다.

"나는 엄마에게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며 겨울이야. 너는 바람이며 뱀뱀이며 나무와 숲이며 파란 하늘이고, 수없이 떨어진 낙엽으로 덮여 있는,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는 길이며, 하얗게 평평 쏟아져 내리는 함박눈이기도 해."

"그리고, 또 그리고 보고 싶구나. 억울하고, 억

아들·딸들에 보내는 110편 묶음

편지 모음집 '그리운 너에게' 발간

전통문화관 내일 공연 '지고 피고...'

청소년 삶디자인센터 다규 4편

메이홀&이매진·광주극장 영화 상영

울하고, 억울하고 정말 화가 난다. 지금쯤 대학도 가고, 군대도 갈 수 있었을 텐데. 네 꿈인 선생님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을 텐데. 아빠는 너무 화가 난다. 지켜 주지 못했어."

수록된 편지들에선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자식을 가슴에 묻고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하는 엄마, 아빠들의 고통이 느껴진다. 그럼에도 세월호의 진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삶의 존재 이유 또한 담겨 있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14일 오후 3시 너털마당(우천 시 서석당)에서 열리는 토요상설공연으로 이담금(푸른연극마을 대표)과 강숙향(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 회원), 박선숙(돌움무용단 대표)을 초청해 세월호 4주기 추모공연 '지고 피고, 또 지고...' 무대를 선보인다.

이 날의 무대는 세월호 이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밝은 내일을 향해 젊고 보람찬 전진을 다짐하기 위한 기억과 행동의 이야기를 창작 춤 시극으로 표현한다.

첫 번째 무대는 '0416 그날'로 세월호 침몰에 따른 절망과 슬픔, 아픔과 분노의 시간을 돌움무용단의 춤사위로 풀어내 그날의 기억을 소환한다. 이어지는 '모두가 세월호였다'는 이담금의 시낭송과 강

숙향의 노래, 박선숙의 춤사위가 어우러져 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희생자를 추모하는 소리를 형상화하며 우리 모두의 아픔을 이야기한다.

이어 '250명, 304개의 꽃으로 다시 피어'는 세월호의 아픔과 분노, 희망을 안고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시낭송과 춤 속에 녹여낸다. 단원고 250명 학생 마지막 한 사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자는 다짐과 미래를 향한 전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마지막 무대는 '꽃의 노래'로 0416을 기억하고 채 피지 못한 어린 학생들과 희생자들의 이름을 읊으며 눈물로 떠나보낸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시간으로 이날 공연을 마무리한다. 문의 062-232-1595.

청소년 삶디자인센터에서는 세월호 4주기를 추모하며 유가족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함께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유가족들의 일상과 연대를 담은 다큐멘터리 '세월-0416', 세월호 희생학생의 친구들과 또래 세대의 공감기록단이 만난 지유 다큐멘터리 '친구들: 숨어있는 슬픔'을 상영한다. 또 '어린이 되어', '이름에게' 등 세월호 생존학생과 가족들의 다큐멘터리 4편을 연속으로 상영한다. 관람을 희망하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며 오는 21일까지 운영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신청서 및 명단을 작성해 광주시청소년삶디자인센터에 이메일(gonyang@samdi.or.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70-4173-0182.

이밖에 메이홀&이매진(관장 임의진, 대표 박성인)과 광주극장에서 세월호 4주기 관련 영화상영회가 열린다. 광주극장에서는 세월호를 위한 진혼곡 '눈꺼풀'을 상영중이며 14일 오후 5시에는 메이홀에서 세월호 다큐멘터리 '공동의 기억: 트라우마'가 상영된다. 문의 062-224-5858.

/박성진기자 skypark@kwangju.co.kr /전은재기자 ei6621@kwangju.co.kr

금봉미술관 한부철 초대전 17일~5월6일

투명한 수채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금봉미술관(한상운 관장)이 수채화가 한부철 작가 초대전을 진행한다.

오는 17일부터 5월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 주제는 '답다-Comprehend'다. 향수를 자극하는 소재와 자연을 주제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 작가는 이번 '답다' 시리즈를 통해 순수한 아름다움을 전한다. 맑은 기운의 색감들은 자연스러운 번짐을 통해 은은한 분위기를 전달하며 수줍은 듯 피어있는 각양각색 꽃들은 화폭에 생생한 기운을 더한다.

특히 시적인 조형미와 색채를 더해풀어낸 꽃과 나무, 장독과 투박한 사발, 대지와 하늘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잔잔한 감동을 전한다.

한 작가는 지금까지 20여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아주적 광채'전(북경 798갤러리), '풍경을 거닐다'전(광주 신세계 갤러리) 등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광주시미술대전 대상,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광주전 남수채화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그룹 '라이브' 회원 등으로 활동중이다. 문의 062-269-988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답다'

국립남도국악원

국악가극극 공연

내일 순천기적의도서관



국립남도국악원(원장 정상열)은 '2018 책의 해'를 기념해 국악가극극 '뽕뽕뽕 방귀쟁이 뽕뽕마니'로 전국 기적의도서관과 만난다.

오는 14일에는 전국 총 12개 도서관 중 1호로 설립된 순천기적의도서관(전남 순천시 소재)에서 그 첫 공연의 막을 올린다.

'뽕뽕뽕 방귀쟁이 뽕뽕마니'는 진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영등할매 설화물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국악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기도로 바닷길이 열리는 기적이 이루어져 호랑이를 피해 헤어졌던 마을주민들과 다시 만나게 된다는 내용을 담아 어

린이들에게 들려줄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국립남도국악원에서 후원하는 '기적의 국악도서관' 프로젝트로 총 6회에 걸쳐 순천, 제천, 김해, 청주, 서울 도봉, 울산 지역의 6개 도서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기적의 국악도서관' 프로젝트는 책임있는사회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지식의 공간에 감성을 더하고, 더 많은 관객을 만나기 위해 창작 국악극을 널리 보급하고자 기획됐다.

공연은 무료이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문의 061-540-4036. /전은재기자 ei6621@

광주시청차미디어센터 19~20일 흑산중 청소년미디어캠프

시청차미디어재단 광주시청차미디어센터(센터장 박대식)는 오는 19~20일 양일간 2018 청소년미디어캠프 '흑산중학교 편'을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흑산중학교 전교생 16명을 대상으로 광주센터 및 광주 남구 양림동 일대에서 열린다.

캠프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지난해 흑산도 청소년들의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제작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열린 '2017 섬마을 미디어페스티벌'에 참가했던 학생들이다. '청소년미디어캠프-흑산중 편'은 미디어, 문화 소외지역인 흑산도의 학생들

을 위해 광주지역 문화 탐방과 접목한 맞춤형 미디어 제작 교육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광주 남구 양림동에서 문화탐방과 함께 촬영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광주센터로 이동해 영상편집 교육 및 스튜디오 실습 과정으로 이어진다.

한편, 광주센터의 '섬마을 미디어페스티벌'은 작년 흑산도에 이어 올해는 7월 중 신안군 비금도에서 학생 대상의 미디어교육 캠프 및 영화상영회, 미디어버스 체험 등의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은재기자 ei6621@kwangju.co.kr

이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8년 4월호

3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소확행

트렌드

확신

북간 5주년 - 발행인의 편지
다섯 번째 봄
새순처럼 차오르는 첫 마음

- 소확행 라이프 꿈꾸는 이들
- 출판가 소확행 신드롬
- 대중문화 사로잡은 소확행

스포츠이야기

'디펜딩 챔피언' 호랑이 군단
최강 전력 그대로 V12 사냥 출발

해양수산부 공동기획-한국의 국가어항②

활기와 체형,
서해안권 국가어항들

노중훈의 꿈의 여행

호수에 기댄 핀란드인의 삶
핀란드 레이크랜드

동네책방에 빠지다-책방발족

남만, 지혜 실은 물 위 서점
런던 리젠트 운하
'워드 온 더 워터'

매망 초대석

나무칼럼니스트 고규홍

"나무아름다운 곳에서는 사람도 평화롭죠"

광주풀리 다시보기(4)-소통의 오두막과 서원문 재등

사람, 자연, 삶 속에서 문화로 소통하는 풀리

문화연장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오전의 즐거움
ACC 브런치 콘서트

정윤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2)
'천재 감독' 두 명의 전쟁영화 두 편 스틸버그 vs. 멜릭

전시리뷰

<이강하의 길>
이강하미술관 개관전

트렌드 따라잡기

혼술이 외로운 그대
'복막' 하실래요?

나무 사이로
분화꽃 핀 생태도시
다양한

봄날 문화소풍 즐기며
정겨운 옛 시간과 자연 품으로
담양식 데자갈비, 떡갈비